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5호 【루게 제 25929호】 주제 107 2월 24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남도안의 모범적인 선동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생산자대중을 증진들려오며 힘있게 불타고 계시는 평안남도 중요공업부문의 모범적인 선동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개천지구관할관합기업소 조양탄광 3경채 13중대 1소대 체탄공 백익선은 어렵고 힘든 모험마더에 남면저 어깨를 들이밀고 탄부들이 석탄장산으로 우리 당을 결사 옹위해나가도록 이같이 지난 10여년간 소대가 맡겨진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당초조선전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신임에 보답할 일일안고 선동활동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는 북창지구청년관합기업소 남덕청년탄광 1경 채13중대 2소대 운반공 민희선은 수천척지하마장에서 부강조국을 억세게 떠맡아가고있는 탄부들을 새로운 혁신장소로 고무추동하여 집단의 사기를 높이고있다. 순천지구청년관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 7경 굴진4소대 굴진공 신장일과 10경 2중대 콘베어운전공 리현선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선동활동으로 대중을 수령의 유호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오랜 세월 선동원으로 사임하고있는 덕천지구관합기업소 월봉탄광 운반공 백트중대 하차소대 하차공 박학숙은 철세위인들의 위대성자로 수백천을 비롯

한 각종 교양자료들을 탐유있게 만들어 선동활동에 널리 리용하여 모든 소대원들의 투쟁열, 애국열을 비상히 높여주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보은직장 3작업반 보은공 도성일도 당초조선전일군으로서의 책임감을 지니고 지난 기간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선동활동으로 전투장들이 증산열기로 뛰어들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보내주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선동원들은 당의 신임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상전의 포성을 더욱 높이 울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참담게 이바지해갈 불타는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 주체조선의 상징이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은장군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속에 진행된 광명성절축하행사에 참가하였던 우리 제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성원들은 조국을 떠나면서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이시며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립니다. 이역방에 살고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조국은 품결에도 그리며 안기고싶은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입니다. 백두산에서 백제사의 아들로 탄생하신 그날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오신 어머니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돌이켜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분을 명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대표단 단장을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 탄생 76돐경축 중앙보교대의 주석단에도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조국체류기간 저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발자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류경리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 등을 돌아보면서 조국땅에 울려 퍼지는 사회주의만세소리를 똑똑히 들을수 있었으며 경제강국건설의 최후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피부로 절감할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잊을수 없는 조국방문의 나날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제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성원들은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가슴에 새기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유신인 제중조선인총련합회를 더욱 튼튼히 다져갈 충정의 결에 동참되어있습니다. 우리들은 사회주의조선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만을 충효입심으로 받들어오며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대결책들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더 힘차게 조직전개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 강국념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나가기 위한 조국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기여하고 통일애국사업에 떨쳐나섬으로써 뜻깊은 공화국창건 70돐을 누구보다 멋있게 맞이하겠습니다.

이역방에 돌아오는 광풍이 아무리 사나아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만을 따르고 보답의 한길만을 꽃피어갈 우리 제중조선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자나깨나 우리 제중조선동포들과 전체 해외동포들이 한마음으로 바라고 또 바라는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뿐입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존엄으로 빛나는 김일성민족, 김정은조선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주체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무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제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일동 주제107(2018)년 2월 21일 평양

어머니장군님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시며 조국의 큰 명절이나 기념일때면 늘 우리 제중조선인들을 불러주시고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들려주시었으며 저희들의 자그마한 성과들도 높이 평가해주고 값있는 영예까지 안겨 주시었습니다. 함로 어머니장군님의 태양같은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제중조선인들의 심장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습니다. 오늘 주체혁명의 전투에는 어머니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특출한 명도력과 숭고한 덕망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빛나는 안되는 사이에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천지개벽을 이룩하시었으며 지난해에는 《3.18혁명》, 《7.4혁명》과 《11월대사》를 편이 안안오이 국가혁명무력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얼마전에는 열렬한 민족애의 대응단으로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공화국의 선수단과 예술단, 응원단, 고위급대표단까지 파견하시어 민족의 자주적열혈투쟁은 온 세상에 휘몰아치게 하여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을 명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뜻깊은 평평성찰을 맞으며 조국에 도착한 우리 제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성원들에게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 세라 다정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었으며

## 주체사상에 관한 인디아전국토론회 진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세계평화의 근원지-평화와 희망》이라는 주제로 주체사상에 관한 인디아전국토론회가 9일 뉴델리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토론회에는 인디아 김정은로작연구회, 주체철학연구위원회, 엘리아정부, 델리주체대학과 이사회이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인사들,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참가하였다. 인디아주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국제 연구소 부리사장인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하리쉬 굽파의 기조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자주사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공부화하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시어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건설하고 우리 인민을 자주정신이 강한 인민으로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명도력에 대해 격찬하였다. 그들은 제국주의면학세력의 끊임없는 도전과 극단한 제제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의 현실은 주체사상의 정당성,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김정은동지의 고집적 저작들과 정의를 갈망하는 진보적인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희망의 등대이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류태일이 엄중한 시련의 시기 선군의 보검으로 사회주의를

공화국을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명도나 연구수에 있어서 크지 않은 나라인 조선은 위대한 수령들을 모셔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온갖 전횡을 일삼는 미국도 감히 어찌지 못하는 강국으로 존엄받치고 있다. 정녕 조선은 평등과 해방, 평화와 정의의 갈망하는 진보적인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희망의 등대이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류태일이 엄중한 시련의 시기 선군의 보검으로 사회주의를

# 전인민적인 총공세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자

## 철생산능력확장공사 힘있게 추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달성에 떨쳐나선 황해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대중이 1월 주체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지역경쟁의 기치드높이 철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상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철소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합리대수요를 충족시켜야 할것이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철강재생산을 높이는데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을 잘 안고있는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데 힘을 넣는것과 함께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완상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기술개조전투가 련합기업소적인 사업으로 벌어지는 속에 강철직장의 산소전로설치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여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각작업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당이 준 과업은 그 어떤 조건과 난관이 있어도 가로막아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한창기공시작작업을 비롯하여 대상공사를 최단기간에 걸쳐서 끝까지 완수해나가기 위하여 밤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산소전로설치공사성과는 날을 따라 확대되고있다. 산소분리기설치공사를 맡은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국방과 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발휘한 당정책결사판정의 투쟁정신과 투쟁분배를 따라배워 기조코르테지지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압연공정에 선기술을 받아들여 각종 압연강재의 생산을 높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대내되고있다. 금속재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지난 시기 중량배우산에 단 도입한 기술을 각종, 형강생산에 비롯한 모든 철강재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지역작업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것을 심장마더에 깊이 새겨안은 련합기업소의 기술자, 연구사들은 공

정, 여러 계층에 대한 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국가과학원의 해당 연구사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맡겨진 과제를 빠른 기간안에 결속하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거듭해나가고있다. 이밖에 련속조피기에 전자유도교반기술을 도입하여 지난 시기보다 강철을 훨씬 생산하기 위한 사업, 우리 원로에 의거하여 합금강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들이 련합기업소적인 사업으로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생활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들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전투장마더에서 련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현지보도반

## 봄철영농전투의 돌파구를 열었다

과일군일군들과 근로자들. 과일군에서 과일농사차비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있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헌신지도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년초부터 파간한 돌격전을 벌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군에서는 최근 한달 남짓한 기간에 휴묘산비료생산에 필요한 13만t의 니란제기와 운반, 2200t의 링장광과 5000t의 카리비로확보를 전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기간에 2만t의 도시거름과 수천의 물거름을 농장들에 보내주고 수십만t의 나무무가 생산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봄철전투는 사회주의수호전 전조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대경쟁일이다.》

## 서부지구 탄전들에 울리는 경제선동의 힘찬 북소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을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라 할것이다.》

서부지구의 탄전에서 혁명의 북소리,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긴 경제선동중앙지휘부의 일군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평안남도안의 탄광들에 혁명적열정과 기백이 차넘치게 하고 생산에서 끊임없는 양성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집중적인 경제선동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경제선동중앙지휘부의 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직접 내려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 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탄부들에게 깊이 해설해주고 그들을 화력탄광산투쟁으로 힘있게 불타오르는데 함께 헌신하여 전개된 선전선동력량들의 열혈을 더욱 높

이어나가도록 하고있다. 이들은 경제선동대원들이 사회주의경쟁을 방비받듯이 조직하고 화력선전선동들의 도수를 보다 높여나감으로써 서부지구 탄전에서 선전선동력량들이 순천지구청년관합기업소와 북창지구청년관합기업소와 북창지구청년관합기업소, 독장지구관합기업소와 덕천지구관합기업소, 개천지구관합기업소와 탄광들에서 혁명의 노예, 투쟁의 노래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순천지구청년관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에 달려나간 평양시 평천구역과 서성구역경제선동대원들은 탄부들이 좋아하는 민요풍의 노래들을 불러주고 춤도 함께 추면서 경제선동을 참신하게 벌여 탄광이 들끓게 하였다. 또한 독장지구의 탄광들에 나간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신평군의 경제선동대원들은 석탄생산에서 앞장선 혁신자들을 축하하는 공연들을 비롯하여 정황과 계기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이공식속보관을 가지고 탄부들의 투쟁성과도 고무해주면서 생산정도를 북돋아주었다. 본사기자 우정희

## 경제선동대원들속에서는 수천척지하마장에서 성실한 애국의 맘을 바치려는 탄부들의 기적에 찾아가 실현속의 정으로 위해주고 도와주는 소행들이 끊임없이 발휘되고있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발시키며 심장에 불을 다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는 탄부들의 혁명적열의의 높이를 발상시키고있으며 탄광들마더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중앙과 지방의 경제선동대원들의 집중경제선동활동에 고무된 평안남도안의 화력탄광들은 많은 탄광들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일어나고있다. 수많은 청년돌격대들이 뜻깊은 올해의 첫날 결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불빛을 지켜 어렵고 힘든 전투장에서 목숨이 동계급의 본분을 다해가는 탄부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어 각자의 경제선동대원들이 높이 울려가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는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우정희

## 군대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헌신적열정을 철저히 관철할 결사의 각오를 배어 새기고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수백만그루의 과일나무들에 대한 가지자르기를 더 진행하였다.

지구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또다시 과일대풍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한사함없이 떨쳐나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 장 군 님 과 맺 은 정 영 원 하 리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다.

장 군 님 과 맺 은 정 피출처럼 피출처럼 지닌 마음 그 언제나 인민은 일원단심 당을 따라 일원단심 아 간직하리 ...

위대한 장군님을 영도자로, 아버지로 모시고 따르며 걸은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 대한 정열은 추억의 노래,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충정의 노래인 《인민은 일원단심》

부르던 부활수목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온 나라 천만국민이 그의 전사, 제자를 자라난 나날을 사부치는 그리움속에 돌이켜보게 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이를 하늘처럼 믿고 살아왔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머나먼 길을 헤쳐오는 그 나날에 우리 인민이 신념으로 간직하고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있다.

일원단심, 바로 그것이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 있었습니 다.》

우리 인민의 일원단심은 곧 영도자와 맺은 혈연의 정이다.

인간관계는 인정관계라는 말이 있다. 혈연의 정으로 맺어진 영도자와 인민간의 관계는 가장 순교하고 아름다우며 뜨거운 관계이다.

피를 갈수록 없고 부모와 자식간의 정을 갈수록 없듯이 그 이유로도 갈수록 없고 깨뜨릴수 없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인민들 사이에서 맺어진 정이다.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려면 누구나 소중히 간직하고있고 목숨바

쳐 지켜가는 그 뜨거운 혈연의 정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신 축원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이원위천의 한생, 인민사랑의 한생이었다.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짝 차있었으며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들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애고 의지였다.

노래에도 있는 것처럼 펼쳐낸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우리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을 합치면 인민뿐이다.

한평생 인민을 마음속에 안고계신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그 려볼 때면 어느새 양력살날이 떠오른다.

그날 아침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디엔가 금방 다녀오실듯 한 차림을 하고계셨다.

자신의 차림새에서 눈길을 빼지 못하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마다 양력살이 되면 우리 인민들이 명절을 어떻게 쇠고 있는지를 생각해 많이 지근거리 한다고, 일군들이 명절풍습도 잘지도 명절을 즐겁게 보낼수 있도록 조직사업이 다 잡혀있다고 보고하

지만 어떤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지금 시골을 한바퀴 돌아보고 오는 걸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나직한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으나 마디마디에 넘치는 열화같은 애인의 정이 일군들모두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과 함께 식사를 마추하시었다.

명절날이었지만 식탁에 오른 음식은 너무나 수수하고 소박하였다.

담배와 산나물을 꾸미로 없은 강령이군들... 일군들은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라 머리를 숙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그런 후더운 인정을, 그렇듯 고귀한 인간미, 인간 향기에 누구인들 매혹되지 않을수 있나.

우리 장군님의 위대하고 고결한 인민 사랑의 품도에 대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얼마나 뜨겁게 교시하시었던가.

인민들을 믿어주고 사랑하는것이 김정일동지의 천품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정일동지는 늘 믿음과 사랑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고자 말하는데 나는 그의 말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진심이 어닌이 말은 인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김정일동지를 무한히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한결같이 따르고있습니다. ...

인민들이 좋아하며 기뻐하는 거기에 우리가 시련을 헤쳐나갈 힘이 있는것이 있는것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말을 들을시 때마다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곤 하신 위대한 장군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 언제나 나 인민을 놓고시고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신것을 더 없는 락으로 여기신분.

인민이 당하는 불행에서 제일로 큰 고통을 느끼시고 인민의 존엄과 이익이 침해당하는데서 제일 큰 분노를 느끼신 진정한 인민의 영도자, 인민의 아버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살아온 나날에 눈보라가 세차게 일던 추운 겨울밤들에도 있었어도 그의 육신적 사색이 열화되고 갈아 이 땅의 천만 자식들의 마음을 언제나 후더웠기 나, 참으로 우리 장군님은 인민을 한몸에 소중히 안으시고 자신의 열과 정을 다 부어주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었다.

20년전에 있던 또 하나의 사실은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혈연의 정이 어떤정인가를 눈물겹게 절감하게 한다.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신 바로 그들이 지닌 투쟁기질이 우리 시대 인간들이 따라배워야 할 혁명가의 자각성이다.

늦추어주어도 늦추어지지 않는것이 주체적 혁명가의 고유한 기질이다. 아무리 놀려놓아도 반드시 제 자리에 돌아오는 고무줄처럼 혁명가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며 누구나 요구하지 않아도 각경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통제하면 각성하고 늦추어 놓으면 풀이치는 현상은 혁명가의 기질과 인연이 없다. 자각성이 없

이 의무감에 못지않게 움직이는 사람은 현상유지나 회피적 발달적으로 자기 사명을 내대는 그런 책임성으로 사명을 전개하지 못한다.

자각성이 습벽으로 굳어진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절대로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며 주체적 인연을 주어도 뒤지지 않고 일과 씨름을 하고 움직인다.

이 의무감에 못지않게 움직이는 사람은 현상유지나 회피적 발달적으로 자기 사명을 내대는 그런 책임성으로 사명을 전개하지 못한다.

자각성이 습벽으로 굳어진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절대로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며 주체적 인연을 주어도 뒤지지 않고 일과 씨름을 하고 움직인다.

이 의무감에 못지않게 움직이는 사람은 현상유지나 회피적 발달적으로 자기 사명을 내대는 그런 책임성으로 사명을 전개하지 못한다.

자각성이 습벽으로 굳어진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절대로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며 주체적 인연을 주어도 뒤지지 않고 일과 씨름을 하고 움직인다.

이 의무감에 못지않게 움직이는 사람은 현상유지나 회피적 발달적으로 자기 사명을 내대는 그런 책임성으로 사명을 전개하지 못한다.

자각성이 습벽으로 굳어진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절대로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며 주체적 인연을 주어도 뒤지지 않고 일과 씨름을 하고 움직인다.

이 의무감에 못지않게 움직이는 사람은 현상유지나 회피적 발달적으로 자기 사명을 내대는 그런 책임성으로 사명을 전개하지 못한다.

자각성이 습벽으로 굳어진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절대로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며 주체적 인연을 주어도 뒤지지 않고 일과 씨름을 하고 움직인다.

이 의무감에 못지않게 움직이는 사람은 현상유지나 회피적 발달적으로 자기 사명을 내대는 그런 책임성으로 사명을 전개하지 못한다.

자각성이 습벽으로 굳어진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절대로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며 주체적 인연을 주어도 뒤지지 않고 일과 씨름을 하고 움직인다.

이 의무감에 못지않게 움직이는 사람은 현상유지나 회피적 발달적으로 자기 사명을 내대는 그런 책임성으로 사명을 전개하지 못한다.

자각성이 습벽으로 굳어진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절대로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며 주체적 인연을 주어도 뒤지지 않고 일과 씨름을 하고 움직인다.

이 의무감에 못지않게 움직이는 사람은 현상유지나 회피적 발달적으로 자기 사명을 내대는 그런 책임성으로 사명을 전개하지 못한다.

자각성이 습벽으로 굳어진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절대로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며 주체적 인연을 주어도 뒤지지 않고 일과 씨름을 하고 움직인다.

이 의무감에 못지않게 움직이는 사람은 현상유지나 회피적 발달적으로 자기 사명을 내대는 그런 책임성으로 사명을 전개하지 못한다.

자각성이 습벽으로 굳어진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절대로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며 주체적 인연을 주어도 뒤지지 않고 일과 씨름을 하고 움직인다.

이 의무감에 못지않게 움직이는 사람은 현상유지나 회피적 발달적으로 자기 사명을 내대는 그런 책임성으로 사명을 전개하지 못한다.

자각성이 습벽으로 굳어진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절대로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며 주체적 인연을 주어도 뒤지지 않고 일과 씨름을 하고 움직인다.

이 의무감에 못지않게 움직이는 사람은 현상유지나 회피적 발달적으로 자기 사명을 내대는 그런 책임성으로 사명을 전개하지 못한다.

자각성이 습벽으로 굳어진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절대로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며 주체적 인연을 주어도 뒤지지 않고 일과 씨름을 하고 움직인다.

이 의무감에 못지않게 움직이는 사람은 현상유지나 회피적 발달적으로 자기 사명을 내대는 그런 책임성으로 사명을 전개하지 못한다.

자각성이 습벽으로 굳어진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절대로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며 주체적 인연을 주어도 뒤지지 않고 일과 씨름을 하고 움직인다.

이 의무감에 못지않게 움직이는 사람은 현상유지나 회피적 발달적으로 자기 사명을 내대는 그런 책임성으로 사명을 전개하지 못한다.

자각성이 습벽으로 굳어진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절대로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며 주체적 인연을 주어도 뒤지지 않고 일과 씨름을 하고 움직인다.

이 의무감에 못지않게 움직이는 사람은 현상유지나 회피적 발달적으로 자기 사명을 내대는 그런 책임성으로 사명을 전개하지 못한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려차가 평양을 향해 역풍을 벗어났을 때였다.

순간 방금전에 애써 눈물을 감추며 그이를 배배워드리었던 도의 책임일군이 승용차를 타고 려차를 따라 달려가기 시작하였다.

떨어지면 슬픔이 눈길이면 눈길, 얼음판이면 얼음판 가리지 않고 승용차를 달리는 일군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를 목매어 부르며 뒤뚱아 달려가는, 세상에서 자기 어머니밖에 모르는 자식의 그런 정경에 찬 모습을 띠면서 갔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어떤 험한 곳이라도, 하늘땅 끝까지라도 가시려는 위대한 영도자와 그이를 손잡아 기다리며 오직 기쁨만을 드러기 위해 천군도 바치고 한생도 바치는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정을 천리길, 만리길 이면 막을수 있고 업종의 눈보라이면 식힐수 있겠는가.

정령 무궁한 세월도 갈수록 없고 하늘이 무너져도 없앨수 없는것이 아버지장군님과 맺은 정이다.

나는 우리 인민들을 절대적으로 믿습니 다.

과거 유일무이한 정경이기에 일제 때 조선사람 100명을 죽이면 거기에 한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슬고 남자와 같은 강도적인 룰리룰리 들어오면서 슬한 조선사람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천만사람을 믿고 품에 안으면 한놈의 나쁜 놈도 얼얼하지 못한다.

이것은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하신 교시였다.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인 이 절대적인 믿음속에서 수십년동안 가슴에 말 못할 고통을 안고있던 수백명의 주인들이 일시에 애국열사의 유가족으로 된 통천당의 건설도 태어났다.

공로있는 기술자의 연구개발과를 천히 노력하였을 때에는 어떤 통우에게 영웅칭호를 주지 않으면 누가 영웅칭호를 주겠는가고 하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그이의 품속에서 평범한 병사로서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열렬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열사의 애국자입니다.》

수도의 거리에 불항기 넘치나던 어느날 5월이었다.

차장밖으로 흘러가는 밤거리풍경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만수대에 술국장 분수공원에 서 차를 세우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분수공원을 바라보시다가 일군들에게 분수공원이 좀 어두운것 같지 않은가고 물으시었다.

그이의 물음에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였다.

공원의 여러곳에 무리들이 설치되었는데다가 분수공원에 갖가지 색조화를 이루며 생명이 넘쳐나고있어 분수공원이 어둡다고 생각

해보지 못한 그들이었다.

일군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시곤 그이께서는 지금의 조명을 가지고서는 밤에 사진을 찍을수 없을것 같다고 하시었다.

일군들모두가 의아해 하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민들이 놀러나와 밤에도 사진을 찍을수 있게 조명을 하여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이와 시켰던바에야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잘 꾸려주어야 좋겠다고 따듯이 일깨워 주시었다.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었으나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말장고 노란 구슬알들이 물방울 되어 떨어오르는듯, 파아란 옥보석 가루가 안겨되어 피어오르는듯, 불수룩 상쾌한 그 광경에 반하고 위하여 발가는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우던 시민들, 좋아라 기뻐하는 아이들의 손목을 이끌고 즐거움에 겨워 기리는 남녀로소모두의 행복 어린 눈빛...

하지만 그 후였건나 더 주지 못한 것이 있었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열렬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열사의 애국자입니다.》

수도의 거리에 불항기 넘치나던 어느날 5월이었다.

차장밖으로 흘러가는 밤거리풍경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만수대에 술국장 분수공원에 서 차를 세우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분수공원을 바라보시다가 일군들에게 분수공원이 좀 어두운것 같지 않은가고 물으시었다.

그이의 물음에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였다.

공원의 여러곳에 무리들이 설치되었는데다가 분수공원에 갖가지 색조화를 이루며 생명이 넘쳐나고있어 분수공원이 어둡다고 생각

해보지 못한 그들이었다.

일군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시곤 그이께서는 지금의 조명을 가지고서는 밤에 사진을 찍을수 없을것 같다고 하시었다.

일군들모두가 의아해 하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민들이 놀러나와 밤에도 사진을 찍을수 있게 조명을 하여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이와 시켰던바에야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잘 꾸려주어야 좋겠다고 따듯이 일깨워 주시었다.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었으나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말장고 노란 구슬알들이 물방울 되어 떨어오르는듯, 파아란 옥보석 가루가 안겨되어 피어오르는듯, 불수룩 상쾌한 그 광경에 반하고 위하여 발가는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우던 시민들, 좋아라 기뻐하는 아이들의 손목을 이끌고 즐거움에 겨워 기리는 남녀로소모두의 행복 어린 눈빛...

하지만 그 후였건나 더 주지 못한 것이 있었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열렬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열사의 애국자입니다.》

수도의 거리에 불항기 넘치나던 어느날 5월이었다.

차장밖으로 흘러가는 밤거리풍경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만수대에 술국장 분수공원에 서 차를 세우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분수공원을 바라보시다가 일군들에게 분수공원이 좀 어두운것 같지 않은가고 물으시었다.

그이의 물음에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였다.

공원의 여러곳에 무리들이 설치되었는데다가 분수공원에 갖가지 색조화를 이루며 생명이 넘쳐나고있어 분수공원이 어둡다고 생각

해보지 못한 그들이었다.

일군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시곤 그이께서는 지금의 조명을 가지고서는 밤에 사진을 찍을수 없을것 같다고 하시었다.

일군들모두가 의아해 하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민들이 놀러나와 밤에도 사진을 찍을수 있게 조명을 하여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이와 시켰던바에야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잘 꾸려주어야 좋겠다고 따듯이 일깨워 주시었다.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었으나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말장고 노란 구슬알들이 물방울 되어 떨어오르는듯, 파아란 옥보석 가루가 안겨되어 피어오르는듯, 불수룩 상쾌한 그 광경에 반하고 위하여 발가는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우던 시민들, 좋아라 기뻐하는 아이들의 손목을 이끌고 즐거움에 겨워 기리는 남녀로소모두의 행복 어린 눈빛...

하지만 그 후였건나 더 주지 못한 것이 있었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열렬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열사의 애국자입니다.》

수도의 거리에 불항기 넘치나던 어느날 5월이었다.

차장밖으로 흘러가는 밤거리풍경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만수대에 술국장 분수공원에 서 차를 세우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분수공원을 바라보시다가 일군들에게 분수공원이 좀 어두운것 같지 않은가고 물으시었다.

그이의 물음에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였다.

공원의 여러곳에 무리들이 설치되었는데다가 분수공원에 갖가지 색조화를 이루며 생명이 넘쳐나고있어 분수공원이 어둡다고 생각

해보지 못한 그들이었다.

일군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시곤 그이께서는 지금의 조명을 가지고서는 밤에 사진을 찍을수 없을것 같다고 하시었다.

일군들모두가 의아해 하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민들이 놀러나와 밤에도 사진을 찍을수 있게 조명을 하여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이와 시켰던바에야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잘 꾸려주어야 좋겠다고 따듯이 일깨워 주시었다.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었으나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말장고 노란 구슬알들이 물방울 되어 떨어오르는듯, 파아란 옥보석 가루가 안겨되어 피어오르는듯, 불수룩 상쾌한 그 광경에 반하고 위하여 발가는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우던 시민들, 좋아라 기뻐하는 아이들의 손목을 이끌고 즐거움에 겨워 기리는 남녀로소모두의 행복 어린 눈빛...

하지만 그 후였건나 더 주지 못한 것이 있었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열렬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열사의 애국자입니다.》

수도의 거리에 불항기 넘치나던 어느날 5월이었다.

차장밖으로 흘러가는 밤거리풍경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만수대에 술국장 분수공원에 서 차를 세우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분수공원을 바라보시다가 일군들에게 분수공원이 좀 어두운것 같지 않은가고 물으시었다.

그이의 물음에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였다.

공원의 여러곳에 무리들이 설치되었는데다가 분수공원에 갖가지 색조화를 이루며 생명이 넘쳐나고있어 분수공원이 어둡다고 생각

해보지 못한 그들이었다.

일군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시곤 그이께서는 지금의 조명을 가지고서는 밤에 사진을 찍을수 없을것 같다고 하시었다.

일군들모두가 의아해 하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민들이 놀러나와 밤에도 사진을 찍을수 있게 조명을 하여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이와 시켰던바에야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잘 꾸려주어야 좋겠다고 따듯이 일깨워 주시었다.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었으나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열렬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열사의 애국자입니다.》

수도의 거리에 불항기 넘치나던 어느날 5월이었다.

차장밖으로 흘러가는 밤거리풍경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만수대에 술국장 분수공원에 서 차를 세우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분수공원을 바라보시다가 일군들에게 분수공원이 좀 어두운것 같지 않은가고 물으시었다.

그이의 물음에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였다.

공원의 여러곳에 무리들이 설치되었는데다가 분수공원에 갖가지 색조화를 이루며 생명이 넘쳐나고있어 분수공원이 어둡다고 생각

해보지 못한 그들이었다.

일군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시곤 그이께서는 지금의 조명을 가지고서는 밤에 사진을 찍을수 없을것 같다고 하시었다.

일군들모두가 의아해 하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민들이 놀러나와 밤에도 사진을 찍을수 있게 조명을 하여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이와 시켰던바에야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잘 꾸려주어야 좋겠다고 따듯이 일깨워 주시었다.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었으나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말장고 노란 구슬알들이 물방울 되어 떨어오르는듯, 파아란 옥보석 가루가 안겨되어 피어오르는듯, 불수룩 상쾌한 그 광경에 반하고 위하여 발가는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우던 시민들, 좋아라 기뻐하는 아이들의 손목을 이끌고 즐거움에 겨워 기리는 남녀로소모두의 행복 어린 눈빛...

하지만 그 후였건나 더 주지 못한 것이 있었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열렬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열사의 애국자입니다.》

수도의 거리에 불항기 넘치나던 어느날 5월이었다.

차장밖으로 흘러가는 밤거리풍경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만수대에 술국장 분수공원에 서 차를 세우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분수공원을 바라보시다가 일군들에게 분수공원이 좀 어두운것 같지 않은가고 물으시었다.

그이의 물음에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였다.

공원의 여러곳에 무리들이 설치되었는데다가 분수공원에 갖가지 색조화를 이루며 생명이 넘쳐나고있어 분수공원이 어둡다고 생각

해보지 못한 그들이었다.

일군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시곤 그이께서는 지금의 조명을 가지고서는 밤에 사진을 찍을수 없을것 같다고 하시었다.

일군들모두가 의아해 하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민들이 놀러나와 밤에도 사진을 찍을수 있게 조명을 하여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이와 시켰던바에야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잘 꾸려주어야 좋겠다고 따듯이 일깨워 주시었다.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었으나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말장고 노란 구슬알들이 물방울 되어 떨어오르는듯, 파아란 옥보석 가루가 안겨되어 피어오르는듯, 불수룩 상쾌한 그 광경에 반하고 위하여 발가는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우던 시민들, 좋아라 기뻐하는 아이들의 손목을 이끌고 즐거움에 겨워 기리는 남녀로소모두의 행복 어린 눈빛...

하지만 그 후였건나 더 주지 못한 것이 있었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열렬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열사의 애국자입니다.》

수도의 거리에 불항기 넘치나던 어느날 5월이었다.

차장밖으로 흘러가는 밤거리풍경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만수대에 술국장 분수공원에 서 차를 세우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분수공원을 바라보시다가 일군들에게 분수공원이 좀 어두운것 같지 않은가고 물으시었다.

그이의 물음에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였다.

공원의 여러곳에 무리들이 설치되었는데다가 분수공원에 갖가지 색조화를 이루며 생명이 넘쳐나고있어 분수공원이 어둡다고 생각

해보지 못한 그들이었다.



#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 철의 기지에 휘몰아치는 창조적 열풍

### 제33차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과학기술축전장을 돌아보고

철의 기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과학기술축전장이 세계 각국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함에 대한 당의 뜻을 실현으로 받들어 나가는 이국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불타는 총성과 피리는 헌신이 그대로 앞날 열매로 주렁주렁 제33차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과학기술축전장을 장식하고 있다.

우리는 과학기술축전장을 돌아보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고이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강철기둥을 더욱 세세히 세워가려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절감할 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금속공업부에서 제철, 제강, 압연공정의 기술장비 수준을 높이며 원료, 연료, 동력 보장대책을 세워 철강재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과학기술축전위원회의 주도로 진행된 축전에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

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들, 로동계급이 주체적인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생산능력을 높여주는 강철의 생산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여오는 과정에 이룩한 수성건의 과학기술 성과들이 출품되었다.

성과들은 찬란자들이 거기에 반영된 과학기술적용과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우리의 두뇌로 착상하여 이렇게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리 식으로 척척 해결해 갔다고 하면서 일꾼은 우리의 합금강재개발과 관련한 전진대에 이따금씩

미항합금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수입원료로 생산한 합금강을 대용할 수 있는 우리 식의 미항합금강을 생산하여 경제발전에서 이바지한 과학기술성과는 대변에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있는 성과가 이따금씩 있었다.

최근에 이곳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의 과학자들과 합심하여 값비싼 합금원소들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쓰면서도 기계적성질이 좋은 합금강생산을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실현함으로써 경제발전에서 필요한 질 좋은 강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성과가 지난 기간 트랙토르와 자동차생산에 기여하였다고 하는 일꾼의 이야기에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힘으로 일어서려는 확고한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선 우리들의 기지를 엿볼 수 있었다.

6000톤용강재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한 것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성과가 이국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조용강을 원만하게 생산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들은 또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뿐이 아니었다. 가열로에 새로운 전정현수벽틀을 달고 고정벽틀의 도입과 같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한 많은 성과들이 전진대에마다에서 호락호락하게 안겨왔다.

보편 불소속 겹고 우리의 과학기술이 남다른 못지 않다는 자부심이 가슴에 그득이 차올랐고 얼마든지 우리의 힘과 기

술, 우리의 자원으로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훌륭히 실현할 수 있다는 배신이 넘쳐났다.

참으로 제33차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과학기술축전장에 대한 참관은 우리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자기 힘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의의깊은 계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에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생명선으로 들어주시고나간다고 하시면서 전진적으로, 전국각지에서 과학기술의 기지를 들고나갈 때에 대하여 간곡히 강조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기한 혁명적대용 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중심과도 과학기술을 앞세우는 것이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점철하는데서 결정적인 돌파구도 과학기술에 있다.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자강력 제일주의기치로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최망한 매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이 세상사 없었던 것이다.

본사기자 강철웅

이 공정은 우리 나라에 많이 매장되어있는 통철광을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탐구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언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떨쳐나선 금속공업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로동계급의 결사적인 투쟁에 의하여 제33차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과학기술축전장에 대한 참관은 우리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자기 힘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의의깊은 계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에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생명선으로 들어주시고나간다고 하시면서 전진적으로, 전국각지에서 과학기술의 기지를 들고나갈 때에 대하여 간곡히 강조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기한 혁명적대용 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중심과도 과학기술을 앞세우는 것이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점철하는데서 결정적인 돌파구도 과학기술에 있다.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자강력 제일주의기치로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최망한 매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이 세상사 없었던 것이다.

본사기자 강철웅

## 통철광의 자화배소-자력선별공정

이 공정은 우리 나라에 많이 매장되어있는 통철광을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탐구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언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떨쳐나선 금속공업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로동계급의 결사적인 투쟁에 의하여 제33차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과학기술축전장에 대한 참관은 우리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자기 힘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의의깊은 계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에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생명선으로 들어주시고나간다고 하시면서 전진적으로, 전국각지에서 과학기술의 기지를 들고나갈 때에 대하여 간곡히 강조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기한 혁명적대용 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중심과도 과학기술을 앞세우는 것이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점철하는데서 결정적인 돌파구도 과학기술에 있다.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자강력 제일주의기치로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최망한 매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이 세상사 없었던 것이다.

본사기자 강철웅

## 충단식재광법의 채굴지표 개선

이 공정은 우리 나라에 많이 매장되어있는 통철광을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탐구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언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떨쳐나선 금속공업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로동계급의 결사적인 투쟁에 의하여 제33차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과학기술축전장에 대한 참관은 우리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자기 힘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의의깊은 계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에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생명선으로 들어주시고나간다고 하시면서 전진적으로, 전국각지에서 과학기술의 기지를 들고나갈 때에 대하여 간곡히 강조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기한 혁명적대용 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중심과도 과학기술을 앞세우는 것이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점철하는데서 결정적인 돌파구도 과학기술에 있다.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자강력 제일주의기치로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최망한 매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이 세상사 없었던 것이다.

본사기자 강철웅

## 충단식재광법의 채굴지표 개선

이 공정은 우리 나라에 많이 매장되어있는 통철광을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탐구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언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떨쳐나선 금속공업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로동계급의 결사적인 투쟁에 의하여 제33차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과학기술축전장에 대한 참관은 우리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자기 힘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의의깊은 계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에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생명선으로 들어주시고나간다고 하시면서 전진적으로, 전국각지에서 과학기술의 기지를 들고나갈 때에 대하여 간곡히 강조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기한 혁명적대용 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중심과도 과학기술을 앞세우는 것이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점철하는데서 결정적인 돌파구도 과학기술에 있다.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자강력 제일주의기치로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최망한 매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이 세상사 없었던 것이다.

본사기자 강철웅

## 현장에서 걸린 문제를 찾아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제33차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과학기술축전장을 돌아보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고이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강철기둥을 더욱 세세히 세워가려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절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과학기술축전장을 돌아보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고이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강철기둥을 더욱 세세히 세워가려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절감할 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 창진광산금속대학에서

이 안보인재교육을 개선하여 산소열용용광로에 쓰이는 동맹각합성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한편 이 학부의 연구집단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철정광을 채굴하는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우리의 원료와 자재, 기술에 의거하여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도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 두뇌전, 실력전의 불바람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에서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 실리 있는 다기능 3상전원보호기 개발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에서

원료와 연료, 설비의 주체화에 중점을 두고 공방,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성향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 데 주력함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적용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고이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강철기둥을 더욱 세세히 세워가려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절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과학기술축전장을 돌아보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고이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강철기둥을 더욱 세세히 세워가려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절감할 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 다기능 3상전원보호기 개발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에서

원료와 연료, 설비의 주체화에 중점을 두고 공방,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성향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 데 주력함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적용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고이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강철기둥을 더욱 세세히 세워가려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절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과학기술축전장을 돌아보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고이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강철기둥을 더욱 세세히 세워가려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절감할 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 독자의 원기

평범한 근로보장자인 제가 어떻게 펜을 들게 된것은 고마운 당일꾼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고난-함흥도로가 진행중입니다.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적용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고이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강철기둥을 더욱 세세히 세워가려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절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과학기술축전장을 돌아보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고이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강철기둥을 더욱 세세히 세워가려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절감할 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지를 높이고 나가야 합니다.》

대학조직의 지도밑에 금속공학부 연구집단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 당원들은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돌파구를 열어가는 선봉투사가 되자

## 우리는 락원의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신포향 주철직장에서

락원은 우리 조국의 그 어느 일터에서나 만날수 있는 우수한 공업인 로동자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함께 싸우며 싸워온 수백만명의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신포향주철직장 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로 대신한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로동계급의 대는 바뀌어도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려는 충실성의 전통, 일심단결의 력사는 영원히 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몇해 전 신포향주철직장에 황해남도물건공장에 보내준 당원들의 력사가 있었을 때 지기에 어떤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던가.

《예 표상이 없다고 그럼니까, 우리가 양수기만 말만 들어

도 심장이 울리는 락원사람들이 아닙니까.》

《전후 재머리속에서 뻘손으로 양수기를 만들어 당의 대자언제조수기를 받았는데 지금이야 그때에 비하면 조건이나 형편이 열차하라고 생각합니다.》

《혁의 회가 끝난 후 당원들은 스스로 자기 할바를 찾았다. 년로보장을 받은 기능공들을 찾아가 맡은 분야의 기술적문제들을 차근차근 물어본 당원들도 있고 대형주물에 들어가는 원료들을 따져보고 합리적인 배합비율을 모색한 당원들도 있다.》

직장장 류제명동무는 당시로 주물공을 강도보장에 필요한 재료문제를 두고 고심하시었다. 그것은 천수베리나 떨어진 곳에서만 나오는데 있었을 때 거기가 잘라오자면 어지간한 시간이 걸려야 했다.

《우리 아버지세대는 이런 때 어떻게 하였던가.》

락원의 10명 당원중 한 당원의 아들인 그는 어떻게 하면 과일이 나날 때마다 이치런 전세대들이자기를 세워보곤 하였었다.

《그때 대형양수기제작에는 반드시 6mm당금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우리 락원사람들은 단조로방망이로도 훌륭히 해내었다.》

전세대들의 긍지높은 추억과 함께 락원의 전통을 언제나 자기고양에 혼한 재료로 주물공의

장도를 보장할 대담한 발기를 하였다.

두번째 난문제로 된것은 직장 로가 대형주물에 필요한 쇠물을 단번에 풀기에는 좀 작았었다. 일부 사람들은 주강직장의 큰 로에서 쇠물을 끌어 신로향주철직장에 날라다가 주물작업에 할것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이 제안은 신포향주철직장 일꾼들과 당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렇게 되면 제품의 질을 보장할수 없기때문이었다.

우리 락원사람들이 언제 당장에 뿔뿔이 터가 않은 제품을 내놓을적이 있는가. 이렇게 심장을 풀어서라도 또다시 모였을 직장의 당원들은 집체적지혜로 대형주물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야말았다. 근 한달만에 첫 주물공이 나왔었다. 그 누구나 기뻐하던 어느날 밤 생산현장을 돌아본 련합기업소의 한 일꾼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낯익은 모습을 발견하였다. 신포향주철직장의 당원이며 주철1작업반장인 김성철동무가 주철모래판에 막대기가 걸려 새긴 글을 보았었다. 《기일단속! 현수중!》

당에서 정해진 날짜를 단 한 번도 드리어본적이 없는 락원사

랑들, 그들의 앞장에 김성철동무와 같은 성실하고 참된 당원들이 있었었던가.

련합기업소일꾼은 주물공완성시때때로 조여들린 마음이 일시에 어스르 풀리는것을 느꼈다. 이런 당원들이 있는데야 무슨 걱정이 있었는가.

당원들이 펼쳐들어나온 못된 장벽이 없다는것을 신포향주철직장 로동계급은 자기들의 투쟁으로 다시금 증명하였다. 그들은 더 많은 지구장비를 만들어 현수중형에 넘어감으로써 한달이라는 주물공생산기일을 1주일로, 그다음에는 또 사흘만으로 앞당겼다.

그러하여 수십대분의 주물공을 당에서 정해진 기일보다 석달이나 앞당겨 생산하였다. 이것은 사실 기적이였다. 그러나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삶에 늘 자기들을 비추어보며 사는 직장당원들과 로동자들은 그 긍지를 가슴속에 품어둔채 소리쳐 자랑하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새형의 트랙도트물에도 갖출 로동계급의 성실한 마음이 있었었다.

새형의 트랙도트물생산에 필요한 협동공에 들어가는 주물공생산을 맡아안았을 때 신포향주철직장에서는 많은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기술혁신에 펼쳐나섰었다. 두 사람과 더불어 김팔천 책임기사와 주철2작업반장은 지혜와 열정을 합쳐 모래를 쓰

던 생산공정을 균형정비에 의거하는 생산공정으로 개조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약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지난해 의리구부본공생때때로 련합기업소에 나와있는 보진성의 한 일꾼은 이들의 투쟁모습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한다.

《락원로동계급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난관앞에서 주저하며 이것이 없소, 저것을 내오 하고 요구조건부터 앞세우는데 락원사람들이야말로 제기된 과업앞에서는 어떤 조건과 구실도 모르는 진짜 배기공급입니다.》

당이 준 과업앞에서는 오직 결사관철이라는 말밖에 다른 말을 모르는 락원사람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은 항상 락원의 동무들을 잊지 않고있다 고 드르에게 표시하시였다고 당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나날 때마다 락원의 로동계급을 먼저 불러주시는것이 아니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높은 당성으로 일관된 락원의 정신, 락원의 본체는 새 세대 당원들의 눈높이 승결로 즐기게 하여주시었다.

수수하면서도 참되고 성실한 당원들, 당과 련합의 정을 잊고 당정적을 지킬만 못하는 한결에서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찾은 그들이 바로 변함없는 락원의 자랑이다.

본사기자 허 명 숙

## 순천화력발전소 자력갱생직장 주물작업반원들

순천화력발전소 전력 생산자들은 자력갱생직장 주물작업반원들을 가리켜 불을 다루는 사람들 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주물작업반 생산현장에서 석탄분쇄기용강물 생산을 위해 열정을 바쳐 가는 그들이 쇠보다 더 뜨거운 심장을 지닌 사람들임을 가슴깊이 느낄수 있었었다.

위대 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당원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실장깊이 새기고 대고조의 선봉에서 오늘도 순간순간을 굶없는 헌신과 위력으로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지난 1월 초 어느날이였다.

직장에서 조직한 일꾼들의 협의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주물작업반 반장 정순철동무와 당세포원 정순철동무는 당세포원 정순철동무의 마음을 무거웠다. 지난해보다 매달 10%나 더 많은 석탄분쇄기용강물을 생산하여야 할 과업이 나섰던것이였다.

과업을 받으면 《알았습니까.》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서 불도절이라고 불리우는 반장이었지만 어느때와 다르게 긴장되어있는 그에게 정순철동무는

《작업반원들을 믿읍시다. 총성의 당세포 당원들이 아닙니까.》

순간 정순철동무의 마음은 불을 안은듯 뜨거워졌다. 당세포조직과 미더운 당원들이 언제나 곁에 있다는 믿음과 새 힘이 가슴을 벅치게 하였다.

작업반장과 세포위원장은 뜨겁게 손을 마주잡았다. 자신들이 조선로동당의 당원이라는 무한한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새기며.

드디어 높아진 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작업반원들 누구나 1의 석탄분쇄기용강물보다 더 증산하기 위해 뛰고 또 뛰었다.

그 앞에서는 언제나 당원들이였다.

작업반장은 생산조직과 지휘로 바쁜 속에서도 생산에서 제일 걸린 문제를 과철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발명도 마다하지 않고 걸었다.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인 정순철동무는 우리 당의 세포위원장들은 《돌격 앞으로!》라는 말을 이어가며 버리고 배우지도 않으며 오직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웅장한 계획을 앞야야 한다고 하신 경에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두루, 새로운 일자리를 내기 전투의 앞장에서 떨려냈다.

김금봉, 최철준동무는 용해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 아글라를 노력함으로써 중

견보다 쇠물을 더 생산해내었으며 최평혁동무는 가족들과 함께 생일상도 통채로 들고나와 작업반원들의 전투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정준보다 유도로보수시간을 훨씬 줄이면서도 많은 크랑크를 절약할수 있는 기발한 착상을 한 사람들도, 교대를 마치고도 생산이 격정되어 전투장을 뜨지 못한 사람들도 작업반의 당원들이였다.

오늘의 전인민적인 총공세에서 한초라도 늦으면 손해는 사람이 참된 당원이라고 말할수 없다는것이 그들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었다.

이런 당원들이 데오의 앞장에 서있기에 작업반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막고 지난 1월 전투에서 단 12일동안에 맡겨진 월생산계획을 100% 끝내 데 이어 2월에도 지난 8일까지 월전투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참으로 순천화력발전소 자력갱생직장 주물작업반의 생산현장은 그날 걸었던 용해시간을 지체한것을 놓고도 당세포총회를 한 전세대 로동계급의 투쟁정신, 투쟁기공을 그대로 체현화한 참된 당원들이 지켜선 충성의 일터였다.

오늘도 이곳 작업반원들은 계속적인, 계속적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집단적혁신의 불길들 새겨 지퍼올리며 석탄분쇄기용강물 생산에서 혁신타를 일으키고있다.

김 국 철

## 일 잘하는 집단의 기수들

### 개천화차대 구장화차대대에서

일 잘하는 집단에는 모든 면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는 기수가 있기 마련이다.

3대혁명붉은기물 수여받은 구장화차대대에도 누가 보지 않건 수십년을 한직종에서 일하면서 많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대중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당원들이었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당원들은 언제나 당원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혁명과업수행에서 균중의 모범이 되고 균중을 이끌어 나가는 선봉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초 대대장 신정국동무의 방으로 수리중대 중대장 정삼철동무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어느 한 실비를 개조하기 위해 그린 설계도면이 쥐어져 있었다. 설계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책상위에 도면을 펼쳐놓는 그를 보면 대대장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설계를 완성하더라도 며칠밤을 지새웠다는것이 그의 총철진 눈과 허탈한 입술이 말해주고있었던것이다.

뜨거운것을 삼키며 대대장은 책상위로 눈길을 돌리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도면은 어렵거였다. 기술혁신과제를 맡으면 고심어린 탐구와 피파는 사색을 기울이면서 각이한 안을 생각하여 제기하는것이 품에 품매인 그의 일본세라는것을 대대장은 수십년을 함께 일해오면서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이러 진행형 회의에서는 그 중 합리적인 안이 선택되고 재보장은 대대장인, 설비개조는 수리중대장이 책임지고 하는것으로 약속을 짓고 제작에 들어갔다.

설비개조를 하던 이젠에 한개의 부속품만 가공하던것을 여러가지 부속품을 가공할수 있게 매우 실리적인안으로 하여 제작이 진행되는 수리중대원들은 자로 뛰어났다.

그러던 어느날,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대대장은 급하게 제기된 화차수리를 끝내고는 근무성원을 제외한 모두가 휴식시켰다. 늘 현장에서 살다살이 하는 신정국, 리철동무는 그날도 함께 구내를 돌아보고있었다. 설비개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의는하면서 걸음을 옮기던 그들은 수리중대에 이르러 저도모르게 멈추어섰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정삼동무가 보게 되었던 것이다. 곁에 사람이 다가오는줄도 모르고 일터에 어둠이 일던 그가 그들을 알아본것은 조금후였다. 오늘날이라도 좀 휴식하라고 권고하는 대대장에게 그는 웃으며 오늘까지 새 지구제작을 끝내야 설비개조를 다그칠수 있겠기에 하며 말을 맺지 못하였다.

그런 일종의 다른 동무들에게 말걸지 않지 않는가고 하는 그들에게 그는 말하였다.

《저야 중대장이고 당원이 아닙니까.》

짧은 말속에 그만이 아닌 이 몇 일꾼들과 당원들의 소중한 마음이 그대로 비쳐있었다. 당세포위원장 정영태동무는 차량검사원이다. 수리공들과 무

물을 같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의 해결방도를 찾아 수리기일을 앞당기기도 하고 그들에게 기술적인 문제들도 알려주면서 그는 수십년을 묵묵히 일해오고있다.

련차장실중대에는 공구들을 보관하는함이 있다. 달은달은 윤기가 도는 검사마치며 스과나, 정갈하게 정돈된 공구들을 보면 하루에도 여러차례 이용되는 물건이라고는 신통치 않게 느껴진다.

2층으로 아담하게 일떠선 대대사무실과 번듯하게 포장된 구내, 수리기지며 온실, 주변에 심은 여러가지 과일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백수십그루의 나무들... 결코 쉽게 이루어진 열매가 아니었다.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있는 사색가, 실천가인 대대장 신정국동무를 비롯한 당원들이 서있었다.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우고 또 새 일감을 마련하였으며 거기에서 기쁨과 락을 찾았다.

풍화극창정 일흔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한 노력정성과로 빛내어가는 그들은 열의있고 구장화차대대 일꾼들과 중대원들은 전진의 보복을 힘있게 내걸고있다. 그런 데오의 앞장에 당원들이 변함없이 서있다.

본사기자 김 진 욱

##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불씨

### 사리원시피복공장에서

세차게 타면지는 불길도 한점의 불씨로부터 시작되듯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는 일터마다에는 언제나 자기 한몸이 그대로 불씨가 되어 대공의 심장마다에 혁신의 불길을 지퍼주는 당원들이 있다.

일마진 사리원시피복공장에 대한 취재기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노동이든 남다른 애를 들이밀며 실천적모범으로 데오를 이끌어 나가는 당원들의 참된 모습을 보았다.

지난 1월 어느날 저녁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지배인 리철철동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오래

도록 앉아있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기만 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생산현장을 돌며 벌러나간 그들은 단번이 막아나섰던것이다.

생산전투로 불붙던 공장은 삼시에 적막속에 잠겼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때 어머님의 종업원들이 방으로 들어섰다. 공장의 손잡이로 혁신자다운 당원들이였다.

《지배인동지, 생산을 멈출수 없습니다. 이 손으로 기대를 돌려서라도 기어이 생산을 보장합니다.》

《울습니까. 우리 당원들을 믿으십시오.》

이런 열기된 목소리들이 여기 저기서 울려 퍼졌다.

리철철동무는 그들의 모습을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하하고 걸린한 사람에게 어찌 불가능이 있으랴.

이제 그들은 막어진 난관을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현장에 재봉기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손으로 피대를 돌려 생산의 동음을 지퍼가는 공장 당원들의 모습은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전사생산을 보장한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모습 그대로였다. 그런 당원들의 뒤를 모두가 따라 나갔다.

가력맞게 울리는 기대들의 동음은 오늘날 당원들은 당정적용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자기들의 일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깊이깊이 새겨주었다.

학생교복생산과 공공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던 위대한 수령님들과 후대들에 대한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을 생 각하면 잠을 이룰수 없던터 현장에서 철야전투를 벌리고있는 혁신자들도, 그 어떤 조건에서도 중대담과 완강정신을 함수하는 대용중기발생장치를 완성한 열정적인 창고고안명수들, 그들은 바로 당원들이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앞장서 열어나가는 자력갱생의 제일기수가 되리라.

이것이 사리원시피복공장의

당원들이 간직된 심장의 명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복생산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당원들을 품은 심장이 뛰는 한 잠시도 멈추어서는 안되는 당정적용위전이고 우리 당의 후대사랑의 송고한 뜻을 받들기 위한 결사전이었다.

이런 각오를 안고 그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1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도 공장에서 힘차게 울려 나오는 생산성상화의 동음은 당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이렇듯 미더운 조선로동당원들, 대고조선군의 선봉투사들이 있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면지는것이 아니라.

본사기자 신 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배아링생산을 적극 다그치고 있다. -봉성배아링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작음

## 세대마다 많은 집집승을

벽둔군 권향협동농장 제5 작업반에서 당의 축산정책관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추목되는것은 농장원세대들에서 경쟁적으로 여러가지 집집승을 기르는것이다. 특히 작업반장이기때문에 패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집집승을 기르면서 많은 거름을 생산하고있다.

공명훈, 김봉선, 김명화동무도 가정에서 우량품종의 패지를 기르면서 해마다 많은 새끼패지를 생산하여 작업반의 농장원세대들에 나누어주고있다. 이와 함께 부림소관리도 책임지고하고있다.

그들은 콩과팥이불을 위주로 하면서 계기때마다 호박공을 해먹고있다. 다른 농장원세

대들에서도 닭, 염소를 비롯한 여러가지 집집승마리수를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세대마다 집집승을 많이 기르니 거름생산이 늘어나고있다. 따라서 지역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어 알곡증수의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로동동원원 전 준 갑

## 영웅의 넋은 오늘도 곳곳이 이어진다

### 평성시 양지고 급중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준 부대장의 17명 영웅전사들중에는 꽃나이청춘으로 영성하고있는 박성욱영웅도 있었다.

그는 평성시 양지고급중학교가 낳은 첫 공화국영웅이다.

위대 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을 위하여 한복속서숨없이 바쳐쳐우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숭배심을 기쁨으로 하고있습니다.》

일마진 양지고급중학교를 찾으면 우리는 학교일꾼들과 교원들이 박성욱영웅의 어머니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학생들속에 심어주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12월 어느날 박인학교장은 김영숙부교장과 함께 영웅의 집으로 향하였다.

이 학교의 교장은도 사립학교인 박인학교장은 해서인지 영웅의 어머니를 한시비배 만나보고 싶었다.

그날 교육자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영웅의 부모모양 앞으로 돌린것의 길, 애국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김선녀녀성의 말이 귀전에서 울려 퍼지는것을 몰랐던것이다.

며칠후 교장과 교원, 학생들이 또다시 영웅가정을 찾았다. 《영웅의 어머니라고 인민민에서도 떠날리우고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영웅의 어머니 앞에 교장은 새로 만든 영웅의 사진첩을 내놓았다. 비로소 그때야 김선녀녀성은 그가 케달의 사진첩을 가져갔으며 학생들에게 영웅의 넋을 심어주는 일을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한말의 의미를 잊지 못했다.

박인학교장은 영웅의 사진첩을 향장향장 넘기며 말하였다. 《성숙이 어머니, 이 사진첩을 보면서 영웅의 넋을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깊이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영웅의 어머니와 이렇게 이어진 길이었다.

그런 속에 《박성욱영웅과 나의 마음》이라는 책이 생겨났다. 그후 2책에 박성욱영웅처럼 수령결사옹위투사가 되겠다는 맹세를 쓴 학생들의 수가 나

날이 늘어났다.

더욱이 학생들은 영웅의 집에 걸려져있는 박성욱영웅이 남긴 글발을 보며 영웅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충실성의 산모범을 보여준 항일의 아등단인 김금순소녀, 그는 아홉살, 나는 열아홉살. 나는 김금이를 나의 두배이상 사랑한다.》

오직 정예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이제는 박성욱영웅이 자기의 방수첩에 써넣은 글이다.

영웅의 불에 탄 수첩의 한 갈피에 적혀있던 이 글발앞에서 교원들은 중학교요원인 세계만형성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공간을 다시금 느끼었다. 학생들은 귀중한 청춘시절을 어떻게 빛내어야 하는가를 심장에 깊이 새기었다.

언제인가 김선녀녀성은 집에서 모은 꽃씨를 가지고 학교에 온적이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주머니를 본 학교일꾼인 김만수동무는 대뜸 짐작이 갔다. 그 전해에도 학교에 찾아와 학생들과

함께 꽃씨를 심었던것이다.

그날 영웅의 어머니는 학생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스스로 꽃씨를 뿌리고 가꾸는 나날에 울려나다고 하면서 함박웃이아기를 해주었다. 박성욱영웅이 남달리 사랑하였고 인민군대로 나가면서 집에 살아있었던 함박꽃, 그 꽃은 영웅가정에 튼튼한 향기를 가져다주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은 조국에는 바로 자기 집트락에서부터 시작한다는것을 자각하였다.

지난 2월 8일 양지고급중학교의 교원들과 학생들은 또다시 영웅의 가정을 찾았다.

어제날 양지고급중학교의 교원들이 박성욱영웅의 스승이었던 평성제1중학교의 김근욱교원과 함께 왔다.

그날 학생들은 영웅의 부모님 앞에서 박성욱영웅이 남긴 시골을 들었다.

우리의 행복도 있고 찬란한 희망도 있다...

모교에 기억하라 영웅이 되어 돌아오리라

꿈같은 학창시절에 풀었던 리상과 포부, 그것은 사회주의조국을 지키는 길, 위대한 장군님의 명사로 사는 그 길에서 활짝 꽃피울수 있음을 격조높이 꿰뚫어박성욱영웅.

꽃같은 건곤절에 박성욱영웅의 시도 율고 일기도 보였던 학생들은 영웅처럼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단장약하고 경에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총대명사가 될것을 맹세했다.

이렇듯 세월이 흐를수록 영웅의 넋이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맥박쳤다.

하기에 언제인가 양지고급중학교의 졸업반학생전원이 인민군대에 편입하였고 또 언제인가는 한 학교의 녀학생전원이 도로관리원으로 진출하여 당에 기쁨을 드릴수 있었다.

그렇다. 영웅의 심장은 모교와 더불어 오늘날도 수령결사옹위로 고무되고있으며 영웅의 넋은 대를 이어 곳곳이 이어지고있다.

특파기자 오 철 훈



본사기자 신철 작음

#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대한 환상은 곧 파멸

지배와 예측, 침략과 간섭이 없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유화면 세 세계 건설은 인류의 지향이며 념이다. 하지만 이것을 실현하는 길은 순탄치 않다.

난관도 있고 시련도 있다. 적지 않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경제적침체와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고 《원조》와 《협력》의 간판을 내내들며 마치도 저들의 도움이 없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나라들이 위기에서 벗어날수 없는 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완전한 허위이며 기만이다.

경에 하는 최고 정도 자립정당정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말변술책과 기만적인 《원조》에 그 어떤 기대나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원조》와 《협력》을 고수해나가기 합시다.》

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이며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달라진것은 약탈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악랄해진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가 기대를 주고 그 덕을 보겠다는것이 야말로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것이다.

같은 다른 나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여 원조를 주려면 그 어떤 부대조건도 붙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라하는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아가기 위한 약탈과 예측의 울기이다.

그들은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의 경제명맥과 리권을 틀어쥐고 해당 나라들의 경제발전을 억제하며 예측시키고있다. 이것을 가려보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경제를 주저세워보려고 하는것은 매우 잘 못된 생각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큰 도움이라도 주는것처럼 생색을 내는 《원조》는 더 많은 시장과 자원들을 독점하고 최대한의 리움을 쥘것을 노린 약탈자본이다. 그들은 《원조》를 주려는 대상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경제에 편파적이고 난관을 조성하면서 이 나라들이 또다시 새로운 《원조》에 명줄을 걸게 하고있다. 이런 《원조》가 민족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줄리 만무하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어디에 쓰라고 용도를 지적해주고있으며 그것을 어길 때에 가차없이 잘라버린다. 결국 《원조》에 의존하는 나라는 경제건설의 목적과 방향을 자기 나라의 조건과 요구에 맞게 세울수 없게 되어 자연히 제국주의자들에게 예미게 된다. 풍양에는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며 정치적으로도 예측되게 된다.

오늘 적지 않은 나라들이 사회경제명맥을 쥐고있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의 약탈적본질을 똑똑히 보지 못하고 그에 환상을 가지고 대한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세계지배전략을 위한 도구이다.

그들은 《원조》를 구실로 정치체제의 변경까지 요구하고있다.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는 누가 나라를 통치하고 누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로골적인 내정간섭을 하는가 하면 저들에게 고분고분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대한 환상은 곧 파멸이다.

지금까지 그들의 《원조》를 받아 진정한 경제발전과 발전을 이룩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일부 동유럽나라들이나 아프리카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환상을 가지고 그들의 《원조》를 받으면 잘살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치러진것은 심각한 경제위기와 사회적무질서, 혼란뿐이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 더욱 예측되었다. 서방이 《원조》의 부대조건으로 내세운 다당제를 받아들인 결과 아프리카나라들에서는 당파싸움, 권력다툼이 심화되고 피로에 찌러진 정치적독립마저도 위태롭게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환상을 가지면 안된다는것은 역사가 새겨준 철의 진리이며 교훈이다. 제국주의 자들의 《원조》에 그 어떤 기대나 환상을 가지고 지지 말아야 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기 한다. 이것만 이 나라를 지키고 부흥할수 있는 길이며 자주화면 세 세계건설을 앞당기는 길이다.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인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경제건설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 식으로 해나가기 한다. 경제적난관과 시련이 조성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이 강해지고 하여 동요하거나

저앉게 되면 영원히 일어설수 없게 된다.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확고한 추대를 가지고 자기가 세운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기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를 배격하여야 한다. 그들이 세계도처를 돌아치며 떠들어대고있는 《원조》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제의 힘으로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 자립경제를 건설할 때 나라의 남에게 의존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은 담보할수 없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정치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 때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일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는 산 실례이다. 지난 시기 우리는 그 누구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자주화면 세 세계건설을 위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으며 바로 그것이 있기에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의 자들의 그 어떤 제제체책등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치며 전진하고있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화면 세 세계를 바라는 나라라면 마땅히 사회주의건설에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적인 《원조》에 절대로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남을 위한다고 아니라 자기 나라와 민족의 미래, 부강발전을 위한 것이다.

리 학 남

# 제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 기자와 회견

평양성립정국 제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 리민욱이 2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단란시편을 헤치며 세계적인 기적과 번혁을 이룩해나가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조국열리 지역 땅에 사는 총련인군들과 제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념과 용기를 백배해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방문기간 평화화장품공장, 원산구 두공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자력생명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질풍노도치러 나가는 우리 조국의 국력과 발전잠재력을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남들같은 열백년도 더 주저앉았을 류예일이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세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는 질풍은 명제품, 명상품들을 광범 생산하는 자립적경제체제의 위력은 참으로 무진박강하다.

《은하수》화장품, 《메봉산》구두 등 민족적정서와 향취가 안겨있는 부름들을 되뇌일수록 내 나라, 내 조국의 것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 모든 행복의 세부들이 그렇듯 값있고 몇몇것은 남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하여 창조한 우리의것이라는 존엄이 력력히 비껴있기때문이다.

우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성으로 만드는 조국인민들의 자강력은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있다. 이들을 믿고 조국의 자주적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갔다.

이것만으로도 나라를 빼앗기지 했던

우리 민족이 아닌가. 그러던 우리 인민이 질세구원들을 데이 모셔와 먹었다니 마음만 먹으면 세운으로 취척 만들어내고 어떤 기적도 다 이루어내는 강대민족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자력생명의 위대한 전통을 마련해주시고 이 땅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공적은 주체조선의 역사와 더불어 빛을 뿌릴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헌신의 자욱 자욱이 깎는 자력생명의 행로로 오늘을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빛나게 이어가고 계신다.

지금 진보적인인류는 경에 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보무당당한 모습을 보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이 세상에 조선사람이 해내지 못할 일, 점명하지 못할 오해가 없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양을 지닌 이 나라의 자강력의 강자국이기에 우리 공화국의 승리적전진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다.

정령 행성의 위원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불려의 강국이다.

우리 총련인군들과 제일동포들도 김정은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조국의 자주적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갔다.

【 조선중앙통신 】

# 위험천만한 대조선침략기도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대규모적인 싸이버공격을 은밀히 준비하고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얼마전 미국잡지 《포린 폴리시》가 폭로한데 의하면 트럼프행정부는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공격을 단행하기에 앞서 대대적인 싸이버공격을 가할것을 계획하고 정보기관들을 총동원했음을 내었다. 이미 지난 6개월동안 남조선과 일본 등의 해당 지역에서는 뒷방문제비처럼 사자, 부대실력을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싸이버공격준비작업이 극비밀리에 추진되어왔다고 한다. 미국은 기술적인 하부구조구축에만도 수십억US\$의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필요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것과 함께 군정보분석가들을 비상대기상태에 진입시켰다.

미중양국대국 국장 폭포음을 비롯한 트럼프 퍼지러들은 저들이 외교가 실례할 경우에 대비한 일련의 방안을 준비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에 초점을 맞춘 대조선정보, 정보기관의 작전준비는 거의 완벽한 단계에 도달하였다는니, 《첫번째 총알은 싸이버로 날아갈것》이라는니 하고 제치고있다. 한편 트럼프페들은 저들의 싸이버공격준비작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 누구의 《싸이버테러》와 《위협》에 대해 크게 연화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거어인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국의 모험적인 책동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서 감행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저울침을평립경기대회참가로 북남화해의 분위기가 짙고있는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무력중과과 군사적대발행등에 그 어느때보다 기승을 부리고있다.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그 무슨 《예방적인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무모한 군사적대발행에 광분하고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분위기를 극대화시킬 대결과 전쟁준비에 대한 고의적인 도발행동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데 폭로된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싸이버공격준비작업은 통일 의해방관, 평화의 파괴자, 침략의 원흉으로서의 아메리카제국가의 추악한 몰

골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싸이버공격준비를 서두르는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의 시작이다. 미국은 이미 싸이버공격을 《제5의 전장》으로 선포하고 싸이버전을 담당할 사령부를 내렸으며 그 산하에 각 부대들을 꾸려놓고 그 운영에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편성해왔다. 특히 미국은 이미전부터 싸이버공격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공간으로 리용할것을 계획하고 싸이버작전능력을 강화하는데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부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리 리콜브》, 《독수리》합동군사정보를 비롯한 각종 전쟁연습들에 술한 싸이버전문가들을 투입하여 우리를 겨냥한 싸이버공격본편을 체계적으로 감행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정보기관들을 총발파하여 우리에게 대한 대규모적인 싸이버공격준비에 차를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웅남할수 없는 반국가적정보행위,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파렴치한 전쟁도발행위라고 비난할수 있다. 현실은 전쟁행동으로 리성을 잃은 트럼프퍼지러들의 대조선침략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어실히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무슨 《싸이버테러》나, 《해킹》이니 하고 우리를 뻔뻔스럽게 걸고들면서 국제적비난을 모면해보려고 비뚤하게 놀아내고있다. 이것은 악명없는 해커제국, 싸이버테러왕초인 저들의 흉악한 정체를 가리우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에게 대한 싸이버공격으로 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어리석은 개꿈을 버려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세계가 공인하는 무적의 군사강국이다. 가졌것은 다 가지고있으며 모든것에 준비되어있는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거기에 대응해줄수 있다.

미국이 무모한 대조선침략야망을 추구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면 그것은 아메리카제국의 종국적파멸로 막을 내릴것이다. 미국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경계당동하지 말아야 한다.

은 정 철

# 최근 미제가 북침전성동을 더욱 요란스럽게 벌려놓고있다.

그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행위와 공격이 늘어나고있는것이다.

지난 1월 21일 새벽 남조선 강령 미제침략군의 《RC-7B》정찰기 1대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쪽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유엔군사령부》의 승인하에 실시된 군사행위는 비무장지대에서의 정찰비행이 더우기 휴식일인 일요일에 강행됨으로써 내외의 주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월부터 주일미군기지에서서도 《RC-135》정찰기 한 대, 《EP-3》정찰기 한 대를 비롯한 각종 정찰기들이 매일 비무장지대 남쪽상공에 날아들어 우리측 지역을 정밀감시하는 등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행위와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있다.

# 미제가 남조선에 최신형 무인공격기를 끌어들이려고 책동

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미제가 최신형 무인공격기를 3월초까지 남조선강령 미제 침략군부대에 배치하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레이트 이글》이라고 하는 이 무인공격기는 미제가 《반대로》의 미명하에 수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예멘 등 여러 나라들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포하여 약탈을 행한 《프레더》무인기를 개량한것이다.

호전파들은 정밀유도폭탄과 미사일을 장비한 이 무인기들이 유사시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중요대상물들을 노린것이라고

# 북침전성준비에 피눈이 된 미제의 위험한 군사적움직임

또한 남조선에 파병되는 미군들이 가족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미국의 NBC방송에 의하면 트럼프는 6개월전 안보보좌관에게 남조선에 새로 배치되는 미군에 가족과 함께 가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직접 지시하였으며 그 후 백악관은 금지장엄을 내리고있다고 한다.

얼마전에는 미국방성내에서 가족동반이 허용되지 않음수 있다는 미군이 이미 남조선을 가가운 시기에 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보고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한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중수뇌들이 4월 1일 조선반도에서의 출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군의 증언들도 무시할수 없다.

# 미제가 남조선에 최신형 무인공격기를 끌어들이려고 책동

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미제가 최신형 무인공격기를 3월초까지 남조선강령 미제 침략군부대에 배치하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레이트 이글》이라고 하는 이 무인공격기는 미제가 《반대로》의 미명하에 수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예멘 등 여러 나라들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포하여 약탈을 행한 《프레더》무인기를 개량한것이다.

호전파들은 정밀유도폭탄과 미사일을 장비한 이 무인기들이 유사시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중요대상물들을 노린것이라고

는 정 철

# 미제가 남조선에 최신형 무인공격기를 끌어들이려고 책동

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미제가 최신형 무인공격기를 3월초까지 남조선강령 미제 침략군부대에 배치하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레이트 이글》이라고 하는 이 무인공격기는 미제가 《반대로》의 미명하에 수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예멘 등 여러 나라들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포하여 약탈을 행한 《프레더》무인기를 개량한것이다.

호전파들은 정밀유도폭탄과 미사일을 장비한 이 무인기들이 유사시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중요대상물들을 노린것이라고

# 미제가 남조선에 최신형 무인공격기를 끌어들이려고 책동

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미제가 최신형 무인공격기를 3월초까지 남조선강령 미제 침략군부대에 배치하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레이트 이글》이라고 하는 이 무인공격기는 미제가 《반대로》의 미명하에 수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예멘 등 여러 나라들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포하여 약탈을 행한 《프레더》무인기를 개량한것이다.

호전파들은 정밀유도폭탄과 미사일을 장비한 이 무인기들이 유사시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중요대상물들을 노린것이라고

는 정 철

# 미제가 남조선에 최신형 무인공격기를 끌어들이려고 책동

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미제가 최신형 무인공격기를 3월초까지 남조선강령 미제 침략군부대에 배치하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레이트 이글》이라고 하는 이 무인공격기는 미제가 《반대로》의 미명하에 수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예멘 등 여러 나라들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포하여 약탈을 행한 《프레더》무인기를 개량한것이다.

호전파들은 정밀유도폭탄과 미사일을 장비한 이 무인기들이 유사시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중요대상물들을 노린것이라고

# 미제가 남조선에 최신형 무인공격기를 끌어들이려고 책동

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미제가 최신형 무인공격기를 3월초까지 남조선강령 미제 침략군부대에 배치하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레이트 이글》이라고 하는 이 무인공격기는 미제가 《반대로》의 미명하에 수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예멘 등 여러 나라들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포하여 약탈을 행한 《프레더》무인기를 개량한것이다.

호전파들은 정밀유도폭탄과 미사일을 장비한 이 무인기들이 유사시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중요대상물들을 노린것이라고

는 정 철

# 왜 동남아시아에로의 발걸음들이 잦은가

지난 1월 로씨야방방 세르게이 쇼이구가 동남아시아의 말라와 라오스, 캄보디아를 공식방문하였다. 그 이후 미국방장관 마티스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행차하였다.

두 나라 군사당국자들은 자기들이 불을 붙여놓은 나라들과 군사협력관계를 중시해 놓고 논하였다. 언론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로씨야와 미국이 각축전을 벌이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이 더 관심을 부리고있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지난해 11월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행차하였다. 앞서 부통령 펜스의 인도네시아행차이기도 하였다.

일본도 뒤지려 하지 않고있다. 지난해 1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대한 아베의 행차와 8월 수상 고노의 필리핀행차 등 일본당국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미일의 정객들은 추파를 던지며 이 지역으로 앞을 다투어 드러내고있다.

중국도 동남아시아에 대한 세력전진책정에 주도권을 장악해보려고 이 지역에 고위인물들을 자주 파견하고있다.

하지만 왜 동남아시아에로의 발걸음들이 잦은가.

동남아시아는 아시아대륙의 남동쪽으로부터 그 앞바다에 둘러싸여 말라이제도도 포괄하는 지역이다. 인디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에 놓여있다.

지정학적 중요성과 자원의 풍부성으로 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은 수세기부터 열강들의 치열한 각축전장으로 되어왔다.

포르투갈과 네델란드, 영국, 프랑스식민주의들과 일본,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은 말라이아 지역 나라들은 오래동안 식민지로 남아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여러 나라들이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인 결과 독립을 쟁취하고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설수 있었다.

그후에도 대륙들은 동남아시아에 여전히 눈독을 들이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틀어쥐려고 음흉하게 획책하였다. 그에 대처하여 동남아시아의 5개 나라 즉 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1967년에 지역적협력기구인 아세안(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을 창설하고 단합된 힘으로 대륙들의 내정간섭을 반대로하며 동남아시아에로의 발걸음들이 잦은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강화를 노린 대륙들의 정찰대는 여러 분야에 확대되고있다.

일본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부부를 두고있는 아시아 개발은행을 리용하여 동남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배려를 확립하기 위해 발광하고있다.

동남아시아지역을 틀어쥐려고 한테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체결교섭을 주도하던 미국이 저들의 라이이 되지 않는다하고 하면서 포기하였지만 이제 그 주도권을 쥐고 제정교섭을 마무리하려 하고있다. 중국은 아시아인부구조투자은행을 설립하고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국제경제조약에 대해 제창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저들의 구상실현에 참가시키려 하고있다.

동남아시아지역에서 명목본방과 내정간섭으로 하여 대륙들이 이 지역나라들과 대륙들사이의 모순관계가 심화되고있다. 이 지역이 점차 열점지역으로 변화하고있다.

지역나라들속에서 무기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있는것과 함께 무기시장을 틀어쥐기 위한 대륙들사이의 열연 경쟁이 벌어지고있다.

중국과 일본이 경제를 수단으로 하여 이 지역에 침투한다면 미국과 로씨야는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하여 동남아시아를 틀어쥐려 하고있다. 얼마전 만만에 대한 국방상의 공식 방문과정에 로씨야는 자국의 전투기를 만만에 남입할때 대한 합의를 이룩하였다. 유럽동맹과 미국 대 로씨야로워한 이 대충 출격하고있는 조건에서 로씨야는 동남아시아 나라들과의 군사적협력을 강화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있다.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세력전진행태가 지역나라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둘러싼 대륙들간의 모순과 대립을 보다 격화시키게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예 경

# 자본주의로는 해결할수 없는 녀성인권문제

한 사회적문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녀성근로자들에게 차례지는 임금인상분배에 비해 훨씬 적으며 그중에서도 같은 일에 종사하는 아프리카계 녀성들과 라틴아메리카계녀성들의 임금은 남성들이 받는 임금의 69%, 58%밖에 안된다.

일본에서 구히 보았것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근로자들중 70% 이상이 녀성들이다. 녀성들이 인신을 하던 일에서 해고되기 일쑤이다.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한 녀성들이 일에서 고강도노동을 강요당하고있다.

《몸도 마음도 갈가김!》, 이것은 몇몇 젊은이들의 어느 한 회사의 24시간 녀성승무원이 장시간의 가혹한 로동에서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이

얼마전 미국의 한 사전전문업체는 자기 회사에서 편찬한 사건에서 지난해에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남녀평등권주의》이며 이것은 2016년에 비해 70% 늘어났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트럼프의 대통령취임식이 있던 다음날 워싱턴의 곳곳에서 녀성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세계도처에서 《자매행진》이 잇따라 벌어졌다. 《남녀평등권주의》 단어검색률이 자기 늘어났다

한 사회적문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녀성근로자들에게 차례지는 임금인상분배에 비해 훨씬 적으며 그중에서도 같은 일에 종사하는 아프리카계 녀성들과 라틴아메리카계녀성들의 임금은 남성들이 받는 임금의 69%, 58%밖에 안된다.

일본에서 구히 보았것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근로자들중 70% 이상이 녀성들이다. 녀성들이 인신을 하던 일에서 해고되기 일쑤이다.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한 녀성들이 일에서 고강도노동을 강요당하고있다.

《몸도 마음도 갈가김!》, 이것은 몇몇 젊은이들의 어느 한 회사의 24시간 녀성승무원이 장시간의 가혹한 로동에서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이

# 자본주의로는 해결할수 없는 녀성인권문제

한 사회적문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녀성근로자들에게 차례지는 임금인상분배에 비해 훨씬 적으며 그중에서도 같은 일에 종사하는 아프리카계 녀성들과 라틴아메리카계녀성들의 임금은 남성들이 받는 임금의 69%, 58%밖에 안된다.

일본에서 구히 보았것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근로자들중 70% 이상이 녀성들이다. 녀성들이 인신을 하던 일에서 해고되기 일쑤이다.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한 녀성들이 일에서 고강도노동을 강요당하고있다.

《몸도 마음도 갈가김!》, 이것은 몇몇 젊은이들의 어느 한 회사의 24시간 녀성승무원이 장시간의 가혹한 로동에서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이

얼마전 미국의 한 사전전문업체는 자기 회사에서 편찬한 사건에서 지난해에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남녀평등권주의》이며 이것은 2016년에 비해 70% 늘어났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트럼프의 대통령취임식이 있던 다음날 워싱턴의 곳곳에서 녀성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세계도처에서 《자매행진》이 잇따라 벌어졌다. 《남녀평등권주의》 단어검색률이 자기 늘어났다

한 사회적문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녀성근로자들에게 차례지는 임금인상분배에 비해 훨씬 적으며 그중에서도 같은 일에 종사하는 아프리카계 녀성들과 라틴아메리카계녀성들의 임금은 남성들이 받는 임금의 69%, 58%밖에 안된다.

일본에서 구히 보았것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근로자들중 70% 이상이 녀성들이다. 녀성들이 인신을 하던 일에서 해고되기 일쑤이다.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한 녀성들이 일에서 고강도노동을 강요당하고있다.

《몸도 마음도 갈가김!》, 이것은 몇몇 젊은이들의 어느 한 회사의 24시간 녀성승무원이 장시간의 가혹한 로동에서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이

# 자본주의로는 해결할수 없는 녀성인권문제

한 사회적문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녀성근로자들에게 차례지는 임금인상분배에 비해 훨씬 적으며 그중에서도 같은 일에 종사하는 아프리카계 녀성들과 라틴아메리카계녀성들의 임금은 남성들이 받는 임금의 69%, 58%밖에 안된다.

일본에서 구히 보았것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근로자들중 70% 이상이 녀성들이다. 녀성들이 인신을 하던 일에서 해고되기 일쑤이다.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한 녀성들이 일에서 고강도노동을 강요당하고있다.

《몸도 마음도 갈가김!》, 이것은 몇몇 젊은이들의 어느 한 회사의 24시간 녀성승무원이 장시간의 가혹한 로동에서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이

얼마전 미국의 한 사전전문업체는 자기 회사에서 편찬한 사건에서 지난해에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남녀평등권주의》이며 이것은 2016년에 비해 70% 늘어났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트럼프의 대통령취임식이 있던 다음날 워싱턴의 곳곳에서 녀성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세계도처에서 《자매행진》이 잇따라 벌어졌다. 《남녀평등권주의》 단어검색률이 자기 늘어났다

한 사회적문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녀성근로자들에게 차례지는 임금인상분배에 비해 훨씬 적으며 그중에서도 같은 일에 종사하는 아프리카계 녀성들과 라틴아메리카계녀성들의 임금은 남성들이 받는 임금의 69%, 58%밖에 안된다.

일본에서 구히 보았것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근로자들중 70% 이상이 녀성들이다. 녀성들이 인신을 하던 일에서 해고되기 일쑤이다.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한 녀성들이 일에서 고강도노동을 강요당하고있다.

《몸도 마음도 갈가김!》, 이것은 몇몇 젊은이들의 어느 한 회사의 24시간 녀성승무원이 장시간의 가혹한 로동에서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이